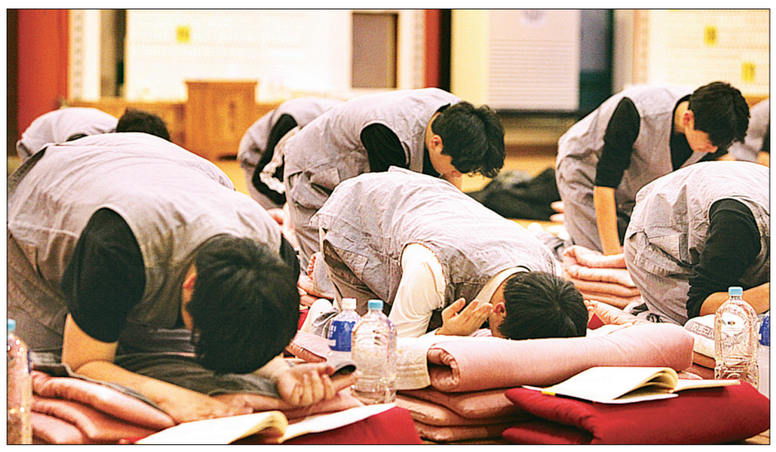
“끝까지 해냈다” 해동고 학생들, 3000배 정진

12월 31일~1월 1일, ‘제16회 삼천배 정진법회’

24명 동참해 삶의 방향 탐색
천 배 넘어 고비 이어졌지만
인내심·끈기 배운 값진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통도사 설법전에서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이 좌복 위에 몸을 낮추고 삼천배 정진에 임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 배 한 배에 마음을 모으며 새해를 맞았다.

해동고 학생들이 통도사 설법전에서 3000배 정진으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맞았다.

학교법인 영축학원 부산 해동고(이사장 현덕 스님·교장 오상현)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 통도사 설법전에서 ‘제16회 진로진학을 위한 성도절 삼천배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현장에는 24명의 학생이 참석해 절을 이어 가며, 진로와 삶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물었다. 안정수 교법사가 절수행을 지도했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문재준 교사와 조준석 해동고 행정실장이 함께했다.

설법전에는 좌복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였다. 학생들은 합장하며 ‘지심귀명례’ 염송에 따라 몸을 낮췄다. 정진이 이어지자 학생들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목에 건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절이 반복되자 학생들은 저려오는 다리를 털며 제자리걸음으로 근육을 풀었다. 700배를 넘긴 뒤 물 한 잔으로 숨을 고른 학생들은 다시 좌복 앞에 섰다. 영하의 강추위가 예고된 날이었지만 설법전 안은 수행의 열기로 뜨거웠다.

1700배에 이르자 통증은 심해졌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기록도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았다. 2200배를 넘어서면서는 “공부할 때는 짜증만 났는데, 지금은 오만 감정을 느낀다”, “2200배가 공부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다” 등 밀려오는 여러 감정을 표현했다.

2500배에 이르자 통증은 극에 달했다. 다리가 견디기 힘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2700배를 지나면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눈을 감았다 뜨면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표현도 전해졌다.

드디어 3000배가 모두 끝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차분해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감격이 이어졌다.

3000배를 마친 뒤 학생들은 회향 소감에서도 각자의 다짐을 전했다. 한 학생은 “삼천배 회향으로 인내심과 끈기를 기르게 됐다”며 “일상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진을 마친 뒤 학생들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자리를 함께했다. 현덕 스님은 학생들에게 염주를 끼워주며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삼천배 정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밑바탕이 되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동고는 교내 해동법당을 중심으로 매일 108배 정진을 하는 한편, 성도절과 새해에는 3000배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6회를 맞은 3000배 수행을 위해 학생들은 45일간 특별정진하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록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안국, 취약계층 마음돌봄 실천

9개 기관서 총 267명 동참
범어사 ‘비오마인드’ 연계해
사찰음식 체험·순례 등 경험


참가자들이 범어사 ‘비오마인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회복지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 스님)이 범어사 ‘비오마인드(BEOmind)’ 프로그램과 연계한 마음돌봄 활동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돌봄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불교 수행과 문화 체험을 기반으로 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서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연산종합사회복지관,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부산지역 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해 장애인, 정신장애인, 독거 어르신과 보호자 등 총 267명이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사업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

마음돌봄 나눔은 사회복지법인 안국이 범어사의 대표 마음치유 프로그램인 비오마인드를 복지 현장과 연결해 기획·후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안국은 총 2000만원을 후원했으며, 불교 수행의 자비 정신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비오마인드는 ‘범어사에서 마음을 경험하다(Beomeosa Experience of Mindfulness)’라는 의미를 담은 범어사의 마음치유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불교 수행 전통과 사찰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쉼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사찰음식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비오마인드 푸드’, 범어사 순례길을 걸으며 호흡과 마음을 가다듬는 ‘비오마인드 워크’, 연등 만들기를 통해 마음의 빛을 되새기는 ‘비오마인드 라이트’ 등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오마인드 프로그램 이후에는 참여 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싱잉볼 명상, 체육활동, 문화 관람 등 참여자 특성에 맞춘 후속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정서 안정과 회복 효과를 확장했다.

대표이사 수불 스님은 “비오마인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경험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범어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돌봄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문화대상 시상식…김성규 등 수상

12월 30일 통도사 설법전서
월하 대종사 22주기 추모도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제22주기 추모다례재와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12월 30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렸다.〈사진〉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현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여러 인연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같은 불사들은 잘 가꾸고 정리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잘 정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13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학술문화 부문에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 포교원력 부문에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봉사실천 부문에 김연호 제천 진주동물병원장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2000만원이 전달됐다.

현문 스님은 “그간 1000만원이던 상금이 올해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며 “재단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사들을 비롯한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협조해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 해동고 2학년 김성겸 학생과 보광고 3학년 고다영 학생에게 영축문화재단 장학증서도 수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용궁사, 연말 맞아 ‘자비의 쌀’ 전달

개금종합복지관에 1500kg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말사 해동용궁사(주지 덕림 스님)가 연말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사진〉

해동용궁사는 12월 29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열고, 백미 1500kg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과 식사배달 사업에 사용된다.

해동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을 대신해 원주 연경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눔과 자비의 실천에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량사, 제1회 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

17명 동참…“한국불교 미래”



부산 청량사(주지 운암 스님)가 12월 28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제1회 어린이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17명이 동참해 불자로서의 첫 서원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지 운암 스님은 “오늘 계를 받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불교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청량사는 이번 수계법회를 계기로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여름방학에 열리는 미국 동부 백림사 영어 불교 캠프 참여자에게 사찰 차원의 경비 일부를 지원해 인재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 지 성주
사부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유튜브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우학스님이 전하는
생활법문, 인생강좌, 선어록 강의 등을
매일 새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심도 있는
불교 공부가 가능하며,
57만명의 유튜브불교대학
신도님들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기도성취大도량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 대구큰절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회 주 지산
주 지 징암
사부대중 일동
관운사 다음카페 : cafe.daum.net/guanunsa
YouTube “지금으로 가는 징검다리TV”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전화 054)931-7777 팩스 054)931-3000
관운사 가야 복지센터 Tel (054)933-0808